

※ 범위 분석 및 총평

1. 출제 영역별 문항 수

대단원	분류	문항수	출제 영역
국어의 역사		2	국어의 역사적 변천 1, 문자의 소멸 1
이론 문법	2	음운론	음운 변동 1
		형태론	단어의 형성 1
		문장론	
어문규정	3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표기법 1 띄어쓰기 1
		로마자표기법	1
		외래어표기법	
		표준어 규정	
비문학		5	문장 배열 1, 내용 파악 1 논리적 오류 1, 내용 추론 2
문학	3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시 1, 소설 1 문학사 1
어휘	5	한자	독음 1, 표기 1
		속담, 관용어	속담 1
		기타	의미관계 1 고유어 1

2. 총평

17년 6월 서울시 9급 국어 문제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들이었다. 서울시답게 현대 문학사가 1문항 출제되었으며, 국어의 역사 파트에서 2문항이 출제된 것이 눈에 띠지만, 대체로 출제 범위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다. 어휘 문제가 5문항 출제되어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한자어의 독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험생도 있었겠으나 한자어 표기 문제는 쉬운 편이라 전반적으로 한자 문제의 체감 난도는 그리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유어와 속담에서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비문학은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추론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오류 문제는 오류에 대해 완벽하게 공부를 못 한 수험생일지라도 푸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수준이었으므로 역시 전반적으로는 무난했다.

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선릉[선릉]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뚱강] - Nakd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1. 정답 2번

출제 범위: 로마자 표기법

<정답 해설>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대로 적는 전음법을 따르므로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은 맞다.

<오답 해설>

- ① '선릉'은 발음이 [설릉]이므로 'Seolleung'로 표기한다.
- ③ '낙동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낙동강]에 맞춰 적어야 한다. 따라서 'Nakdonggang'으로 표기한다.
- ④ '집현전'은 축약이 일어나서 [지편전]으로 발음되지만 체언의 '한' 축약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집현전]에 맞춰 적어야 한다. 따라서 'Jipyeonjeon'으로 표기한다.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방학 동안 몸이 보는 바람에 작년에 산 웃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2. 정답 3번

출제 범위: 한글 맞춤법

<정답 해설>

③ '뒤풀이'는 '뒤+풀이'의 구조이며,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뒤풀이'가 맞다. '맥줏집'은 '맥주+집'의 구조인데 한자어 '맥주(麥酒)'와 우리말 '집'으로 된 합성어이며, [맥주+집]으로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맥줏집'으로 적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 ① 살이 찐 것은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의미로 쓰이는 '붙다'로 표현한다. '붙다'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이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따라서 '몸이 붙는'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넉넉하지 않은'에서 '넉넉하지'의 준말은 '넉넉지'이다. 어간 '하-'의 앞에 안울림소리로 끝나는 음절이 있으면 어간 '하-'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 ④ 책이 '중세 국어의 자료'라는 지위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중세 국어의 자료로서'로 표현해야 한다.

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띠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③ 'ㆍ'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④ '崩'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崩'으로 변하였다.

3. 정답 1번

출제 범위: 국어의 역사

<정답 해설>

띠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속하는 규범이므로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규범화되었다.

<오답 해설>

② 주격 조사 '가'는 근대국어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③ 'ㆍ'는 음가의 소실이 먼저 일어나고, 문자의 소실은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일어났으므로 문헌상으로는 20세기 초까지 나타난다.

④ '崩'은 15세기 중반(세종 당대)까지 사용되다가 모음 '오/우'로 변하였다.

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⑦ 신라의 진평왕 때 놀최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늦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⑧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의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⑨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⑩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결의를 밝혔다.

- ① ⑦ ② ⑩ ③ ⑨ ④ ⑧

4.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주제 찾기 유형

<정답 해설>

두괄식으로 구성하려면 주제가 맨 앞에 와야 하므로 주제문을 찾으면 된다. ⑦, ⑩은 놀최의 절개에 관한 이야기이고, ⑨은 죽죽의 절개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두 가지 일화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⑧이므로 주제문을 ⑧으로 하여 맨 앞에 배치하면 된다.

5.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5. 정답 3번

출제 범위: 현대문학 - 시

<정답 해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유년 시절에 대해 회상하고, 현재의 부끄러운 자아를 성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시이다.

제시된 내용은 시의 앞부분으로, 별을 보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등을 떠올리고 있다. 이것을 통해 '별'이 화자에게는 추억이자 이상이고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6. 정답 1번

출제 범위: 어휘 - 의미 관계(반의어)

<정답 해설>

반의 관계는 다시 모순관계, 반대관계, 상대관계로 나뉜다. 모순관계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향이 성립하지 않는 관계이며, 반대관계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향이 성립되는 관계이다. 상대관계는 서로가 없으면 반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관계이다.

'살다'와 '죽다'는 중간 향(사는 것과 죽는 것의 중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순 관계이다.

<오답 해설>

- ② 높다 - 낮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존재하므로 반대 관계
- ③ 늙다 - 젊다: 늙은 것은 아니지만 젊은 것도 아닌 중간 상태가 존재하므로 반대 관계
- ④ 뜨겁다 - 차갑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미지근함)가 존재하므로 반대 관계

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 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 있는 집이란 소리지.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보기>

개살구, 혀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7. 정답 1번

출제 범위: 단어의 형성

<정답 해설>

<보기>에 주어진 단어들은 모두 접사를 포함한 파생어이다.
 ⇒ 개(접사)+살구(어근), 혀(접사)+웃음(어근), 낚시(어근)+질(접사), 지우-(어근)+개(접사)
 ① '건어물(乾魚物)'도 '건(접사)+어물(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이때 '건(乾)-'은 '마른, 말린'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이다.
 ⇒ 건(乾)-: 「1」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겉으로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근거나 이유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어근이 두 개 합쳐진 합성어들이다.
 ⇒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9. 정답 1번

출제 범위: 비문학-추론의 오류

<정답 해설>

주어진 예문에서는 'SNS에서 뜨는 식당'이므로 맛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군중 심리에 호소하여 자신의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다수(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①번 역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근거로 하여 맛이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다수(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오답 해설>

② 맛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으므로 엄청 맛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을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흑백 사고의 오류이다.

③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검증하는 데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개그맨을 이용하여 논증하려 한 것이므로 특정 분야의 권위자를 다른 분야의 논증에 이용하는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십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년 동안 예순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땅땅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

8. 다음 중 한글 창체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님금 ② 늦거사 ③ 바올 ④ 가비야븐

8. 정답 4번

출제 범위: 고전 문법

<정답 해설>

선지의 단어들에서 사라진 글자를 찾으면, ① '님금'은 사라진 글자가 없고, ② '늦거사'는 반치음 '△', ③ '바올'은 옛이음 'ㅇ', ④ '가비야븐'은 순경음 '봉'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 ㅇ, 봉 중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는 순경음 '봉'이다.

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견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양전 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견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 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10. 정답 4번

출제 범위: 현대 문학-소설

<정답 해설>

주어진 작품은 1938년에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된 채만식의 단편 소설 '치숙'이다. 지식인이지만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오촌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하여, 부정적 인물인 서술자가 도리어 긍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정적 인물이 도리어 긍정적 인물을 비판하는 형식은 지식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을 비판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과 현실적 가치관의 갈등을 보여 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장치가 되었다.

제시된 부분에서 서술자 '나'가 원하는 것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보내고, 옷도 일본식으로 입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조선을 업신여기고 부정하며 일본인처럼 살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서술자 '나'를 향해 독자들은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④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독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은 맞다.

<오답 해설>

- ① 서술자는 내지인을 동경하고 있으므로 비판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술자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 중심이며, 다른 인물의 내면에 대한 언급은 없다.

1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 가물에 도랑 친다
- Ⓑ 까마귀 미역 감듯

- ① 헛수고
- ② 분주함
- ③ 성급함
- ④ 뒷고생

11. 정답 1번

출제 범위: 어휘-속담

<정답 해설>

- Ⓐ 가물에 도랑 친다

「1」 '가물에 돌 친다'의 북한 속담.

「2」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짜를 비유하는 말.

* 가물에 돌 친다

물이 없는 가뭄에 도랑을 미리 쳐서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함을 비유하는 말.

- Ⓑ 까마귀 미역 감듯

「1」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겷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

「2」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세밀하지 못하고 거친 것을 비유하는 말.

두 속담의 공통점은 일을 한 후에 아무런 보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① '헛수고'가 적절하다.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陶冶- 도치
- ② 改悛- 개전
- ③ 殺到- 살도
- ④ 汰沒- 일몰

12.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휘-한자

<정답 해설>

- ② 改悛 고칠(개) 고칠(전)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오답 해설>

- ① 陶冶 질그릇(도) 풀무(야)

「1」 도기를 만들거나 쇠를 주조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2」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을 비유하는 말.

- ③ 殺到 빠를(쇄) 이를(도)

「1」 전화, 주문 따위가 한꺼번에 세차게 몰려들.

「2」 어떤 곳을 향하여 세차게 달려듦.

- ④ 汰沒 골몰할(골) 빠질(몰)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

13. 다음 <보기> 중 띠어쓰기가 옳은 것은?

<보기>

①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②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쑥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③ 3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 곧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래는 ④ 일 밖에 없다.

- ① ⑦ ② ⑮ ③ ⑯ ④ ⑰

13. 정답 3번

출제 범위: 한글맞춤법-띠어쓰기

<정답 해설>

‘동안’은 명사이므로 앞말과 띠어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⑦ 창 밖 → 창밖.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⑮ 우단천 → 우단▽천. ‘우단’은 다른 말로 ‘벨벳’이라 불리는 원단의 한 종류이다. 원단 이름인 ‘우단’과 명사 ‘천’은 띠어 쓰는 것이 맞다.

⑰ 일 밖에 → 일밖에. ‘밖에’가 ‘그것 말고는’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놓이면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4. 다음 <보기>의 ⑦~⑩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⑦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⑧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⑨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⑩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 ① ⑦ ② ⑮ ③ ⑯ ④ ⑰

14.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내용 파악

<정답 해설>

⑦ ‘연락을 취해 보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병원 측에서 연락을 취했다는 뜻이므로 주어가 병원 측이다.

<오답 해설>

⑦ ‘속여넘기려고’ 한 것은 환자이다.

⑮ ‘그러는 것 같았어요’에서 ‘그러는’ 행동을 한 주어는 환자이다.

⑩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에서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은 환자이다.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⑦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⑮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⑯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⑩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당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① ⑦ - ⑮ - ⑦ - ⑩

- ② ⑮ - ⑦ - ⑩ - ⑦

- ③ ⑩ - ⑦ - ⑮ - ⑦

- ④ ⑩ - ⑦ - ⑮ - ⑦

15. 정답 2번

출제 범위: 현대 문학사

<정답 해설>

⑦ 신경림의 「농무」가 발표되고,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이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준 것은 1970년대이다.

⑮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된 것은 1920년대이다.

⑯ 구상의 「초토의 시」가 발표되고, 전쟁의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난 것은 1950년대이다.

⑩ 모더니즘 시운동이 일어나고, 김기림은 당시 「기상도」를 발표한 것은 1930년대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⑦ - ⑮ - ⑩ - ⑥이다.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② 굼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④ 끌끌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 ③ 先擇 → 選擇 가릴(선) 가릴(택) *先 먼저(선)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 ④ 準舉 → 準據 법도(준) 의거할(거) *擧 들(거)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표준(標準)

16.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휘-고유어

<정답 해설>

② 굼적거리다(=굼적대다)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오답 해설>

① 가닐대다(=가닐거리다)

「1」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2」보기에 매우 위태롭거나 치사하고 더러워 마음에 자린 느낌이 자꾸 들다.

③ 꼬약대다(=꼬약거리다)

「1」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2」좁은 데로 많은 사람이나 사물이 잇따라 몰려가거나 들어오다.

「3」연기나 김 따위가 계속 나오거나 생기다.

「4」어떤 마음이 계속 생기거나 치밀다.

④ 끌끌대다(=끌끌거리다)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②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③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④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⑤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국+만 → [궁만] ② 물+난리 → [물랄리]
③ 입+고 → [입꼬] ④ 한+여름 → [한녀름]

18. 정답 4번

출제 범위: 음운론-음운의 변동

<정답 해설>

④ 한+여름 → [한녀름]

‘여름’의 ‘ㄴ’첨가가 일어나서 [녀름]으로 발음되므로 첨가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① 국+만 → [궁만]

‘국’의 받침 ‘ㄱ’과 ‘만’의 첫소리 ‘ㅁ’이 만나 자음동화가 일어났으므로 대치 현상이다.

② 물+난리 → [물랄리]

‘물’의 받침 ‘ㄹ’과 ‘난’의 첫소리 ‘ㄴ’ 사이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나고, ‘난’의 받침 ‘ㄴ’과 ‘리’의 첫소리 ‘ㄹ’ 사이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났으므로 대치 현상이다.

③ 입+고 → [입꼬]

‘입’의 받침 ‘ㅂ’과 ‘고’의 첫소리 ‘ㄱ’ 사이에서 된소리되기(일어났으므로 대치 현상이다.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토의-討義 ② 사고-思考 ③ 선택-先擇 ④ 준거-準舉

17.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휘-한자

<정답 해설>

② 思考 생각(사) 상고할(고): 생각하고 궁리함.

<오답 해설>

① 討義 → 討議 칠(토) 의논할(의) *義 옳을(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

19. 문맥상 다음 ⑦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 한다. (⑦)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을 찾아야 한다.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어울린다.'

19.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내용 추론하기 유형

<정답 해설>

⑦의 앞에 '역사는 인간의 자연사',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내부에는 동일하게 대립과 통일이 존재한다' 등의 서술이 있으므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⑦의 뒤에는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를 변증법적으로 보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나로 보는 것을 지향했다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역시 인간사와 자연사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 서술되었다. 따라서 ⑦에는 역사와 자연사를 동일하게 보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므로 ②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가 가장 알맞다.

20.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짐짓해서 심기가 훌 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별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20. 정답 4번

출제 범위: 비문학-내용 추론하기 유형

<정답 해설>

주어진 내용에는 산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서술되었으므로 관점에 따라 같은 대상도 다르게 보인다는 내용과 관련 있는 것